

세계경제연구원/아테나워재단/한국여성경제인협회  
주최 국제회의 - “여성과 성장잠재력”

'14. 12. 1(월) 12:30, 서울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

# 오 찬 사

2014.12.1(월)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과 성장잠재력” 국제회의 개요

- **(일시)** 12.1(월) 09:00~14:00, 롯데호텔(소공동 소재)
- **(주제)** ① 한국과 주요국의 여성인력 활용, ②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 **(참석대상)** 정부/공공기관, 학계/연구원, 언론(기자), 학생 및 일반인 등 약 200여명(예정)
- **(주최)** 세계경제연구원, 독일 아데나워재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국제회의 프로그램 개요>

시간	내 용	비고
09:00~0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li> <li>▪ 환영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li> <li>▪ Nobert Eschborn 독일 아데나워재단 한국 사무소장</li> </ul>
09:10~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조연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li> </ul>
09:30~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션 1</li> <li>한국과 주요국의 여성인력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Joyce Msuya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장,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남윤호 중앙선데이 편집국장, Amy Jackson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li> </ul>
11:00~11:10	Break	
11:10~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션 2</li> <li>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현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 박신영 아시아개발은행 차석 이코노미스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본부장, Barbara Zollmann 한독상공회의소 사무총장</li> </ul>
12:3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찬 및 오찬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님 오찬사</li> </ul>

Chairman Il Sakong (사공일) of IGE,/  
Dr. Norbert Eschborn (노버트 에쉬본),/  
Resident Representative of KAS Korea,/  
President Lee Min Jae (이민재) of KWEA,/  
and President Joon-Kyung Kim (김준경) of KDI,

I would like to express /  
my deep gratitude to you /  
for organizing this meeting to discuss /  
how to utilize the female workforce, /  
who are valuable assets to the Korean economy/  
as well as /  
potential engine of growth.

I also want to thank /  
the distinguish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  
speakers and panelists at presenc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 data, /  
starting next year, /  
women will outnumber men in this country for  
the first time /  
since record-keeping began. I believe /  
this presents a significant opportunity for Korea.

Korea has a lot of highly educated and /  
talented women.

For Korea to grow further, /  
it is essential to provide those women /  
with institutional, social and cultural support, /  
so they can unlock /  
their full potential.

The Park Geun Hye administration, /  
which started in February last year, /  
set the employment rate, /  
not the growth rate, /  
as the key national agenda.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Roadmap to a 70% Employment Rate」, / the government has been focusing / policy efforts on achieving the ambitious goal of / raising the employment rate / from 64 % in 2012 to 70% by 2017.

In light of this, / I believe / the critical part of the key agenda is / to increase the female employment rate / from 54% in 2012 to 62% by 2017 / by encouraging more women / who are economically inactive /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Many women in our nation / have quit their jobs / to start a family and care for their children, / resulting in career disruption.

To help these women /  
continue their careers and/ increase female  
employment, /  
the government has been taking /  
various measures.

First, /  
the Park administration is working /  
to support women in balancing work and  
childcare, /  
through a new system where /  
women who have been working full time /  
can choose to work part-time /  
throughout their pregnancy /  
and when their children are still young, /  
and then /  
return to working full-time /  
when their children are older.

This is a primary example of why /  
the government is trying to create and /  
promote quality part-time jobs.

Second, /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Fathers' Month" /  
to encourage more men /  
to take childcare leave and /  
ensure women shoulder less of the burden of /  
childcare alone.

Furthermore, /  
we continue to build and /  
support more daycare centers /  
in workplaces around the nation.

Third, /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  
to make Affirmative Action more effective /  
to improve both the quality and /  
quantity of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

We plan to introduce /  
a quota for female managers /  
at public institutions next year /  
with the goal of breaking the glass ceiling which /  
Korean women frequently encounter in their  
careers.

We are also making /  
a lot of investments /  
in the fields of vocational training which /  
have helped women enhance vocational skills.

It will not be easy to raise /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dramatically.  
Nevertheless, /  
it is something /  
we must strive /  
to achieve for the current and future Korean  
economy;  
/and clearly,  
/ it is worth striving for.



When more women can engage in /  
fulfilling work without worrying about /  
where and how /  
their children are being cared for, /  
we will be able to bring /  
greater happiness to our communities and /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 hope /  
this conference will be an opportunity /  
to share great ideas and /  
contribute to better understanding of /  
how we might be able to improve /  
the lives of Korean women /  
while empowering them to use /  
the skills they possess /  
to contribute to our growing national economy.

Thank you.

세계경제연구원 사공일 이사장님,  
아데나워재단 노르베르트 에스본(Norbert Eschborn)  
한국소장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민재 회장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

오늘날 한국 경제의 중요한 자산이자 성장잠재력인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제회의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들과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한민국은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넘어서는 여초(女超)사회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  
합니다.

잘 교육된 우수 여성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여성인력이 충분히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작년 2월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국가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하여 '12년 64.2%의 고용률을 '17년 70.0%까지 끌어 올리는 도전적 목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아젠다의 핵심은 바로 여성고용율을 '12년 53.5%에서 '17년 61.9%까지 높이는 등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그간 여성근로자가 취업 후 출산과 육아 시기가 되면 퇴직하게 되어,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여성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여성근로자들이 취업 후 전일제근로(full-time)으로 근무하다가 결혼하여 출산·육아기에는 시간선택제(part-time)으로 전환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가 끝난 후 다시 전일제근로(full-time)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발굴·확산입니다.

둘째,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여성에 편중된 육아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도 더욱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성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운영하여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뚫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여성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직업훈련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도전해야하며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아이들 걱정 없이 일하는 엄마들이 많아질 때, 국민 행복과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한 여러분의 좋은 의견들이 한국의 여성 인력의 활용에 있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1.  
고용노동부 장관  
이 기 권

### □ 세계경제연구원(IGE, 1993년 설립)

- (설립목적) 주요 경제현안의 대안제시를 위한 연구를 위해 설립된 민간 비영리법인
- (이사장) 사공 일 (1993~ 현재)
- (주요 활동) ① 세계적인 석학, 지도자, 고위정책 담당자 초청한 특별강연회, ② 국제경제환경에 대한 분석, 변화 예측 등에 대한 연구, ③ 공동연구 및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사업 등

###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 1955년 설립)

- (설립목적) 기독교 및 민주주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정치·경제 등 분야에서의 학술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독일 정당지원 단체(독일 기독교민주당과 연계)
  - \* 콘라드 아데나워(1876~1967): 독일 초대수상, 기독교민주당(CDU) 공동 설립자
  - \* 앙겔라 메르켈 현 독일 총리(2005~)가 기독교민주당(CDU) 당수로서 연정 운영
- (조직) 독일에 2개의 교육센터와 16개의 훈련센터가 있으며, 120개국에서 78개의 사무소에서 200여개의 프로그램 운영(직원 560명)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KWEA, 1999년 설립)

- (설립목적) 주요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발전도모,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업무의 수행하기 위한 특별 법인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중기청) 제13조에 따른 법정 단체
- (대표자) 이민재 회장((주) 엠슨 대표이사)
  - \* (주)엠슨: 1987년 설립, 박스용지·특수용지 및 사료 수출 무역업체, 12년 매출 230억
- (회원사 및 조직) 2,100여개사, 본회 및 16개 지회(직원 55명)
- (주요 활동) 여성기업 지원활동, 여성창업 및 차세대 여성 CEO 양성사업(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정부 및 협회 출연) 등